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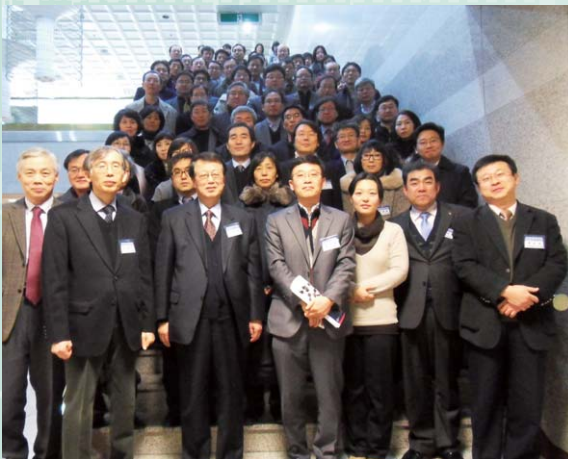
과편협 과학 학술지 발전 방향 대토론회

“편집인 전문성과 시스템 확보, 출판윤리 강화 최우선”



글 허선
한림대 의과대학 교수
과편협 교육연구위원장

과편협 과학 학술지 발전 방향을 위한 대토론회(이하 대토론회)가 지난 2월 2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대토론회에 참석한 회원은 4개 조로 나누어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발표하였다.



물론 건의 내용도 재정 지원 대상에 대한 일부 차이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유사하였다. 토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편집인의 전문성 확보와 편집인의 임기 보장

- 우선 각 학회는 편집인 임기를 10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가능하다면 종신 편집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국제 학술지의 사례에서도 나타나듯 편집인이 오래 일하여야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다.
- 또한 편집인 스스로 편집인(위원, 위원장)을 위한 전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편집인 아카데미 등을 통하여 전문지식과 기술을 확보하고 나아가 편집인이 자료를 공유하는 장을 구성하는 등 서로 도우면서 학술지를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 분임토의 후 4개 조에서 발표한 내용 요약

대토론회에 참석한 과학 학술지 편집인은 학술지의 규모 및 국제 색인 데이터베이스 등재 및 연구재단 등재 여부에 따라 A, B, C, D 등 4개 조로 나뉘어 편집인으로서의 고민과 정부에 요청할 사항을 서로 토의하였다. 학술지의 현 상황은 각기 차이가 있더라도 고민은

국제적 수준으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학회 차원의 대책

- 학회지의 형식과 질을 향상하는 데 전문편집인(원고 편집인) 확보가 관건이므로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원 및 양성이 필요하다. 국가 차원의 번역인 양성도 필요하다.
- 학회에서는 학술지를 오픈 액세스 저널(open access journals)로 발간하여 구글 스콜라(Google Scholar)와 같은 메타데이터베이스에 노출되어 국제적인 인용을 많이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현재 추진 중인 연 1억~1억 5천만 원의 발간비용 지원으로 세계적 학술지가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외에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E), 스코퍼스(Scopus)와 같은 기존 국제학술지의 학술지 국제화와 국제학술지 지원 제도도 지속되면 각 분야별 국제 학술지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 또한 학회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투고관리 시스템(manuscript management system), 편집보조 시스템(Endnote, RefCite 등 reference management system)의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하다.
- 학술지 운영비용 절감 대책으로 Elsevier 수준의 국내 출판사 육성이 필요하고, 학회의 경우 e-Journal 발행을 통해 경비를 절감하고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판윤리 강화를 통한 발전 방안

- 편집인이 표절 검사 프로그램인 크로스체크(CrossCheck)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학회가 크로스레프(CrossRef)에 가입하고, 구글 스콜라(Google Scholar), eTBLAST 검색을 통해 표절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 국문논문인 경우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표절 검색이 어려우므로 정부 차원에서 국문논문 표절방지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여야 한다.
- 표절이나 중복출판 등을 사후라도 발견하여 공표하는 것은 학회지가 출판윤리에 관심을 갖는다는 뜻이므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편집인이 정부에게 요구하는 학술지 정책들

- 국내 학술지로 투고를 유인하는 대책 중 하나가 연구 업적 평가에서 과학인용색인(SCI)과 SCIE의 구분을 없애는 것이다. 구분을 없애면 SCIE 학술지가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 이 내용은 학교나 기관 내부 정책이지만 정부에서 강력한 장치를 걸어줘야 대학 또는 기관에서 평가할 때 반영할 수 있다.
- 아직 많은 학술지는 국가 지원이 없으면 자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표기는 학술지가 국제적으로 신뢰받게 되는 방법의 하나이다. 우수 저널과 소외 분야 저널을 지원하여 학문 범주(category)별 중견학회를 육성하는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급변하는 신규 학문 분야의 학술지 발간과 성장을 위한 생태계 구성이 필요하다.
- 학회 차원에서 유사 분야 학술지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에서 학회지 공동 발간을 지원하면 이를 유도할 수 있다.
- 기타, 일관성 있으며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펼치고 기존 지원제도를 소규모라도 유지하는 것, 여성 과학자가 주로 활동하는 학술지를 지원할 것을 요청한다. 🌸

[출처] 과편협 뉴스레터 2호